박대용 작, '매화 핀 바다이야기'

## 갤러리에 꽃바람 부네

### 무등갤러리 26일~4월 1일 '꽃 圖'전

갤러리에 꽃 바람이 분다.

무등갤러리는 26일부터 4월1일까지 '꽃 圖'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박대용·서명수·송일석·원문희·이선희·이설제·정현정·조수경·최재봉씨 등이 참여한다.

박대용 작가는 봄의 들녘과 바다를 배경으로 원근법을 무시한채 활짝핀 매화를 그려넣었고, 송일석 작가는 스테인레스로 차갑지만 투명한 매화를 표현했다.

영화감독인 원문희씨와 서양화가인 이선희씨 부부는 상상 속의 꽃 '연유도원도'를 영상 콜라보 작업으로 재현했고, 조수경씨는 천연염색과 바느질로 능매를 그려넣었다. 꽃 속에 파묻힌 누드 드로잉 작업을 선보이는 최재봉 작가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전시기간 관람객들에게 꽃차가 함께 제공된다. 문의 062-236-25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Pablo Ruiz Picasso'

## 옆 모습에 삶이 있네

### 주안갤러리 28일까지 '해요' 초대전

'영감을 주는 사람들.'

주안갤러리는 오는 28일까지 제주 출신 작가 '해요'를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Inspirations'(영감)을 주제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해요는 파블로 피카소, 팝가수 맥클모어 등 자신의 작업에 영감을 주는 예술가는 물론 가족, 관심사를 작품에 담았다.

작품에 담긴 인물들의 모습은 대부분 측면 상이다. 작가는 인물들의 옆모습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대하는 시각을 녹여냈다. 특히 작품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해석을 다양한 채색 기법으로 표현했다.

또 하나는 회화와 팝적인 요소들이 작품에 절묘하게 조화돼 있어 인물들의 모습이 유희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가 서양화 전공에 앞서 디자인을 공부한 것에 연유한다.

제주대 예술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XTM '주먹이 운다 시즌2' 타이틀 영상 일러스트레이터로 참여했고, '2014 브라질 월드컵' SBS 타이틀 영상 제작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번 광주 전시 이후 4월4~19일 서울 이태원 소울잉크 아트갤러리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문의 010-2006-520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광주국악방송 1주년 잔치 '얼쑤'

왼쪽부터 조통달, 정회석, 송재영, 왕기석, 윤진철, 김일구, 박춘맹, 송순섭, 김경호, 왕기철.

### 송순섭 등 명창 10인 판소리 무료공연…29일 문예회관

### '빛고을 상사디야' 공개방송…26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지난 3월초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열창! 판소리' 공연은 호평을 받았다. 국악방송(사장 채치성)이 개국 14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 공연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 선생 등 내로라하는 남성 소리꾼 10명이 출연했다.

좀처럼 한 무대에 서기 어려운 호화 라인업으로 임방울국악제, 전주대사습놀이 등 유수의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들이다. 출연진은 '수궁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들을 들려줬다.

광주국악방송(FM 99.3 MHz)이 개국 1주년을 맞아 '열창! 판소리' 광주 공연을 추진한다. 29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출연진은 송순섭 선생을 비롯, 조통달('수궁가' 전수조교), 김일구('적벽가' 전수 조교), 윤진철( 판소리 고법 이수자), 정회석('춘향가' 이수자), 김경호('적벽가' 이수자), 박춘맹('심청가' 이수자), 왕기철('적벽가' 이수자), 왕기석(전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보유자), 송재영(전북도 무형문화재 2호 판소리 전수조교) 등이다.

이들은 '수궁가' 중 '토끼 세상 나오는 대목'과 '토끼 자라 상봉 대목', '적벽가' 중 '새타령', '자룡 활쏘는 대목',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춘향가' 중 '사랑가'와 '이별가',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과 '흥보 매맞는 대목' 등을 부른다.

채치성 국악방송 사장은 "이번 공연은 클래식 분야의 인기 높은 브랜드 공연 '텐 테너스' 무대를 연상시킨다"며 "판소리의 진수를 느끼고 예술적 가치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티켓은 국악방송 홈페이지(www.gugakfm.co.kr)를 통해 1인당 1매씩 신청하거나 광주국악방송(062-602-9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개국한 광주국악방송은 지역 방송국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오후 2~4시 방송되는 '빛고을 상사디야'(연출 김재영·작가 박강의)다. 연극인 윤희철과 국악인 김산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사 콩트 '내 말이~', '남도마을 이야기골', '떴다! 뻥여사!', '올드뮤직 월드 뮤직', '상사디야 동의보감' 등 다채로운 코너로 구성돼 있다.

개국 1주년을 기념해 '빛고을 상사디야' 공개방송도 개최한다. 26일 오후 2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남문화예술재단이 후원하며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 박승희)이 출연한다.

주제는 '노인과 바다'다. 1부 '노인, 그 빛나는 삶의 여정'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을 창극과 판소리, 라디오 드라마로 재구성해 보여주며 2부 '노인, 다시 바다를 향하다'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희망을 일구는 노인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공개 방송 당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국악방송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내일로 가는 우리 음악'(밤 12시~새벽 2시·연출 고미란·작가 장상은)은 확대 편성됐다. 방송인 양지현씨가 새롭게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향기', '보고 싶은 우리 음악' '삶의 레시피' 등 다채로운 코너로 운영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건반위 프랑스

### 피아노학회 호남지부 26일 금호아트홀

'피아노로 듣는 프랑스 음악.'

한국 피아노학회 호남지부 정기연주회가 2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1991년 결성된 한국피아노학회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정기연주회를 가져왔다. 올해는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준비했다.

인상주의 작곡가인 라벨의 작품을 중심으로 생상과 뽈랑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출연진은 박의혁, 함정욱, 김현정, 정지은, 임인수, 최유진, 이슬, 이현주, 박규연, 이은경, 송지영, 성지영, 박효정, 김현철, 강지혜, 서현일 등으로 한 대의 피아노와 두 대의 피아노에서 4손을 위한 피아노 음악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라벨의 '서주와 알레그로', '볼레로', '스페인 광시곡', '어미 거위',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뽈랑의 '쳄버 콘체르토' 등이다. 전석 초대.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대인야시장에서 횡설 수설 취설

### 27~28일 배움터 운영

대인예술시장 창작스튜디오 다다(이하 다다)와 별장프로젝트는 오는 27일과 28일 오후 8시 야시장 기간 동안 횡설, 수설, 취설 등 대인살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인살롱은 다다 입주 작가들이 시민과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일종의 배움터이자 사랑방이다. 다다는 이달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대인살롱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대인살롱은 '학교열락(學敎悅樂)'을 교훈으로 삼아 횡설, 수설, 취설 등 세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횡설은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비평가 등 현장전문가를 초청해 설전을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수설은 다다 입주 작가가 교사가 돼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취설은 지역의 각계 여론 주도층과 예술가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문화예술과 지역 작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7일 문유미 작가가 교사로 나서 '그대 안의 퍼포먼스'를 주제로 강연하고, 스페인의 밤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재즈가수 최정미의 노래공연 등이 진행된다. 28일에는 윤익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예술, 그 멀고도 험난한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10-2620-861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예술로 뚝딱뚝딱 남송예술창고 워크숍

### 담양문화재단 27일

담양문화재단 국제예술창작촌 사업팀은 27일 오후 2시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남송예술창고 워크숍 '예술로 뚝딱뚝딱'을 개최한다.

'남송예술창고'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다.

이날 초대 강사로 인천아트플랫폼 초대 관장으로 일했던 행촌문화재단 아트센터 이승미 관장, 대인시장 미테우그로 설립자인 조승기씨, 중국 북경 체류예술가이자 798 관련서적을 집필한 윤일권씨 등이 참여한다.

이 관장은 '폐산업시설을 예술공간으로', 조씨는 '미테우그로의 탄생과 운영에 대한 장단점', '윤씨는 '북경 폐산업시설이었던 798, 송좡 예술특구의 탄생과 배경'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담양문화재단은 폐창고시설로 방치돼 있던 남송창고를 국제예술창작촌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